

든든한 효자 나무숲으로

유정수 교장선생님

인항고등학교가 여러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평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낸 명문사학으로서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찍이 중국 사람들은 정치가 바로잡혀 나라가 든든할 때 공평을 읽었고, 반대로 정치가 어지러워 나라가 흔들릴 때에는 노장을 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자·맹자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그냥 두고 잘못된 가지를 바로잡거나 병든 잎을 다듬는 방법을 말합니다. 노자·장자는 아예 새 묘목을 심어 제대로 된 나무를 길러내는 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서서 신선한 출발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공평을 읽었고, 그 나라가 세월과 함께 늙어서 아무래도 새 나라로 바뀌어야겠다는 민심이 움직일 때는 노장을 읽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인재를 흔히들 나무에 비유합니다. 인항고등학교는 나무를 기르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전문적인 소질을 살리기 위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하고 독창적인 학사 운영을 통하여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여 그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 신장시키고, 학력 향상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언 인항에서 자란 나무들은 명실 공히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창의성 계발은 곧 미래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학교교육을 실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연마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사회에는 그 현명한 대처 능력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교지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생활하며 느낀 여러 일들을 글과 여러 표현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의 재주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에는 개개인의 좋은 추억이 되며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알게 하는 등 그 모든 과정은 인항의 역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전통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교지에 실린 한편의 내용과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땀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우리들은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훌륭한하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이 그 밑거름이 되어 성실, 봉사, 효행의 교훈을 되새기고, 이제 자신은 물론 가정에, 사회와 나라에 든든한 효자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